

송천·금암도서관, '책 놀이터' 변신

전주시,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사업 완료 '릴레이 재개관식' 개최

전주시립 송천도서관과 금암도서관이 어린이 등 모든 시민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책 놀이터'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22일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사업을 마치고 책 놀이터로 변신한 송천·금암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도서관 운영 민간위원, 동 자생단체 대표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릴레이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22일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사업을 마치고 책 놀이터로 변신한 송천·금암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도서관 운영 민간위원, 동 자생단체 대표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릴레이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3월부터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공사로 인해 약 11개월간 휴관을 했던 금암·송천도서관은 지난달 15일부터 임시개관 형태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데 이어 이날 공식 재개관했다.

과거 자료실과 열람실로 구성된 정숙한 독서실 분위기였던 금암·송천도서관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어지고 열려있는 구조의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2층은 길게 이어진 연속된 아치 서가들 가운데가 뚫려있어 이용자가 기다란 책의 문을 통과해 책과 책 사이를 유랑하는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도서관 3층에는 미디어 시설과 방음환경을 갖춘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의 영

상 창작을 독려하는 크리에이터 양성 과 디지털 배움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 1층에는 장애인일자리 카페인 'I got everything 송천도서관점'이 들어섰으며, 약 2주간의 교육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전주시립도서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금암도서관은 '책과 공간

의 경계를 허문다'는 콘셉트에 따라 내부 1, 2층과 옥상 사이의 층별 중앙 공간을 과감하게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관 2층 천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높은 층고와 독보적인 공간감을 자아내는 넓은 내부 구조가 눈에 띈다.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지리적 특징을 살려 2층 일반자료실과 옥상에 각각 외부로 이어지는 휴게공간을 전주 도심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로 제공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평화도서관과 삼천도서관을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각각 재개관했다.

시는 향후에도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에 따라 현재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인후도서관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시립도서관을 책 놀이터인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책과 함께 뛰어놀면서 꿈을 키우는 공간이자, 시민 삶의 중심인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도서관을 통해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 도서관 여행으로 시민 뿐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사랑받는 인문관광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풍패지관을 찾은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발굴 조사를 통해 조선전기예 축조된 월대 시설과 고려시대 건물지, 통일신라~후백제의 대지조성층 등이 확인된 '전주 풍패지관'을 찾아 발굴조사 성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고려시대 건물지 등을 둘러보며 복원·정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학동예술마을 체계적 관리

전주시, 동서학동·서서학동 일원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주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 서학동예술마을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한 동서학동·서서학동 일원의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일원 약 16만7777㎡를 서학동 예술마을지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서학동 예술마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30일 결정·고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학동예술마을의 미래상을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마을,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마을, 골목골목 예술이 빛나는 마을'로 설정하고, △문화예술시설 집적 유도 △전시·체험·공연 공간 확보 및 유지 △무분별한 상업화 및 난개발 방지 △소규모 지역상점 및 근린상권 보호 △예술마을의 개성과 정취 유지 △주차공간 마련 및 보행환경 개선 등 6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2019년 6월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번 계획수립에 이르기까지 예술마을 지역주민, 전문가, 주민협의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서학동 예술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예술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건물의 형태, 옥외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용과 지형도면 등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에 방문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과 관리방안이 제시돼 도심부 재창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학동예술마을과 도시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전주한옥마을의 활력을 그 주변까지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지역 공모에 선정돼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46억 원을 투자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공공서비스 구축, 예술테마거리·복합문화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예술마을로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왔다.

배회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전주 구도심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예술인 마을의 활성화를 통해 전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주민들과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전주만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학동예술마을은 지난 2010년부터 예술인들이 예술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면서 지역주민과 어울린 예술마을을 형성했으며, 2012년부터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서학동 예술마을 축제, 토요일예술장터, 정기음악회,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김윤상 기자

전주 남부시장에 여행자거리 조성한다

전주남부시장에 여행자거리가 생긴다.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싸전다리부터 마곡교까지 400m 구간 중 가설점포가 철거된 120m 구간을 여행자거리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해당구간의 가설점포를 철거한 뒤 안전하고 확 트인 넓은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민보(1~2m 확장)를 설치하고, 한전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 공사를 마친 상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보도 및 차도포장을 마무리한 뒤 여행자거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설 점포가 남아있는 나머지 280m 구간은 이달 말까지 지붕, 벽면 등 보수를 마무리해 남부시장 이용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5~6m 폭의 보행공간을 가진 여행자거리가 한옥마을에서 남부시장으로 이동하는 주요통로이자 전주전과 초록바위 조망이 가능한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나아가 여행자거리가 옛 남부시장 원예공판장 1층과 2층에 오는 8월까지 조성되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과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의 주 진입로인 만큼 남부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승강기가 있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2층에서 청년몰로 직접 이동이 가능한 연결브릿지를 설치해 휠체어이용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가설점포가 철거된 뒤 여행자거리로 탈바꿈 중인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맛배달' 주문 1만건 돌파

회원수 1만7000여명 · 누적 주문액 2억9000만원 달성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앱 중 개수수료가 없는 전주시 공공배달 앱 '전주맛배달' 주문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전주시는 지난 20여 일간 '전주맛배달'을 운영한 결과, 회원 수 1만7천여 명과 앱 다운로드 2만5천 건, 누적 주문 건수 1만4천 건, 누적 주문액 2억9천만 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맛배달'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돕고 대형 민간 배달앱 플랫폼사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등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중개 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이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주맛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인 시민과 가맹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비스 품

질을 개선하고, 올 연말까지 가맹점을 4000곳까지 늘리기 위해 모집과 홍보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매월 1만 명에게 배달비 할인 쿠폰 및 깜짝 이벤트 쿠폰을 지급해 소비자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나아가 향후 소비자와 가맹점이 함께 상생하는 배달앱 '전주맛배달'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전주맛배달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만큼 올 연말까지 목표했던 회원 수 5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전주맛배달 가맹점 가입 신청 및 문의는 전주맛배달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1010)를 이용하면 되며,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오픈 기념 경품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